

시가 토지개발 인허가 미리 진단... 국토부, 서비스 구축

민원 처리기간 30% 단축 연 75억원 비용 절감 기대 12월 4개 지자체 시범운영 내년 전국 확대·모바일도

국민 누구나 토지개발행위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제공하

는 서비스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분야 AI 대전환(AI)을 위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과제다. 현재 토지개발과 관련한 농지·산지 전용, 건축허가 등은 200여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적용된다. 건축허가의 경우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에 달하는 인

허가 의제를 거쳐야 해 절차에 2~12개월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결합해 개발 대상 토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서비스는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한 등 관련 법령과 조례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파악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주요 검토 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

영된다. AI 에이전트가 토지의 면적, 지형, 규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한 등 관련 법령 기준을 종합 진단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직장 근교에 귀촌을 준비하는 경우 출퇴근 가능 지역에 330㎡ 농지를 구매해 66㎡에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나머지 면적은 텃밭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적합한 후보

지를 제시하고 필요한 인허가 종류, 순서, 소관부서, 예상소요 기간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민원인은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인허가 체크리스트와 각종 부담금 정보를 통해 예산에 맞는 합리적인 사업 준비가 가능해진다. 지자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될 경우에도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정부는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사전심사 청구기간이 대폭 감소하고, 담당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복잡한 법령과 다수 기관 협의기간이 줄어드는 등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되고,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는 오는 12월부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하고, 내년 6월 10개 지자체로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목표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삼성전자, '구매액 20%' 온누리상품권 지급

오늘부터 4주간... 경찰·소방 등 제복공무원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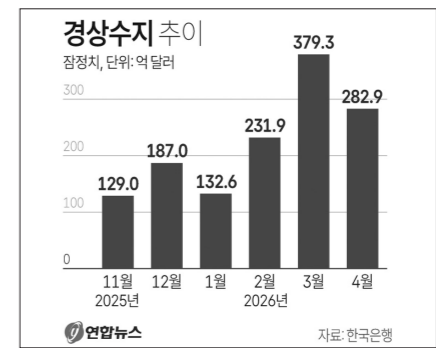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거둔 성장 성과를 모든 국민과 나누기 위해 고객 구매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등에서 거둔 성과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만큼 이에 보답하기 위해 특별행사를 마련했다"며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일부터 4주간 삼성전자 제

복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군인·경찰·소방·교정공무원 등 제복 공무원에게는 특별한 감사의 의미로 10%를 더해 30%의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혜택은 군 장교나 부사관은 물론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현역 국군 용사에게도 적용된다. 국군 용사와 군무원 약 50만명, 경찰 약 13만1000명, 소방 약 6만6000명, 교

정 약 1만6000명 등 총 70만명이 수혜 대상으로 추산된다. 행사 기간 삼성전자는 총 4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삼성전자 구매 고객은 삼성닷컴 내 행사 페이지로 신청하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제품 할인 대신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 점포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자사 고객에게 혜

택을 주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또한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군인·경찰·소방·교정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K-히어로 패밀리 페스타'를 실시해 감사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지난 5월에도 상반기 'K-히어로 패밀리 페스타'를 통해 다양한 가격 혜택과 경품을 증정한 데 이어 호국의 달을 맞아 이번 행사 혜택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삼성전자 노사합의 타결 결과 5조원 사회 기여 확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으로 마련됐다. 지난달 27일 삼성전자는 노사합의 타결 직후 "삼성 성장과 성과가 임직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선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5년간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사회 및 준법감사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회사의 경영 성과가 사회 기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회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술 혁신과 미래 투자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협력사와 지역사회, 미래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 기반을 넓히고 사회 기여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를 생각하며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이어가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해 경상수지 1000억달러 돌파 반도체 호황에 4월 282.9억달러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지난 4월 우리나라가 국제 교역에서 43조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누적 흑자는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경상수지는 282억 9000만달러(약 43조37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올해 3월(379억3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 규모다. 아울러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36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올해 들어 4개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26억7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40억달러)의 4.3배에 달했다. 유성욱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4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월 기준 역대 최대"라며 "사상 처음 3개월 연속 200억달러를 상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들어 4개월 만에 2024년 연간 흑자 규모를 상회하고,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흑자 규모에 근접했다"고 비교했다.

유 부장은 "주요국 경상수지와 비교하면 1분기 744억달러 흑자로, 1분기 기준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작년에는 중국, 독일, 일본, 대만에 이어 5위였으나, 올해 1분기에는 일본, 대만, 독일을 앞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간 기준으로 대만은 2019년부터 우리나라보다 흑자가 많았다"며 "작년에는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연간 570억달러 정도 흑자가 많았으나, 올해 1분기에는 우리나라가 120억달러 정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가 338억 8000만달러로, 전월(356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수출(905억90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54.5% 증가했다. 역시 전월(949억달러)에 이어 역대 2위 규모였다. 정보기술(IT) 품목이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를 중심으로 호조를 이어간 가운데 IT 품목도 석유제품 가격 상승의 영향 등으로 늘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품목별로는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411.3%), 반도체(171.4%), 석유제품(39.4%), 화공품(10.7%) 등이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74.2%), 중국(62.6%), 미국(54.0%), 일본(28.4%), 유로 지역(EU·8.5%) 등에서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 중동 수출은 24.9% 줄었다. 수입(567억달러)도 16.1% 증가했다. 자본재 수입이 반도체 제조장비(55.5%), 반도체(52.8%), 정보통신기기(23.8%) 등을 중심으로 27.7% 늘었다. **연합뉴스**

신협재단, 아동 맞춤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어부바가 알려주는 올바른 신용' 주제... 전국 신협서 활용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2026년 '신협 어부바 멘토링' 사업에 활용할 금융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오고 있다. 올해는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불법 도박, 불법 사채,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 관련 위험 요소를 교육 내용에 반영해 실 효성을 높였다. 올해 콘텐츠는 '어부바가 알려주는 올바른 신용'을 주제로 구성했다. 교육 자료는 교안 2종과 교재 1종, 교구 1종으로 제작됐으며, 전국 235개 신협과 아동복지시설에 교재 및 교구 7500개를 무상 배포해 멘토링 현장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협동의 가치를 배우는 '협동 게임'을 시작으로 신용의 정의와 중요성, 신용점수 관리 방법, 금융사기 및 불법금융 예방 등 총 4단계로 운영된다. 특히 이미지와 활동지, 놀이형 교구를 활용해 아동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신용 개념을 쉽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사기 및 불법금융 예방 교육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대상 온라인 불법 도박과 불법 사채 사례를 다룬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각종 불법 금융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아동·청소년의 금융 범죄 예방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신협재단은 더 많은 미래세대가 양질의 금융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콘텐츠 개발을 계기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고양철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아동과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금융과 금융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올바른 신용 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교육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신협과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경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금융교육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지난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78.82p(5.54%) 내린 8160.59에, 코스닥은 47.29p(4.50%) 내린 1002.44에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검은 금요일' 코스피 출렁... 8000선 붕괴 위기

외국인 20거래일 연속매도·반도체주 급락 변동성지수 고공행진... 환율 1550원 턱밑

코스피가 지난 5일 외국인 투자자의 20일 연속 순매도와 환율 상승 등에 밀리며 장중 8000선까지 위협 받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16.21p(3.66%) 내린 8323.20으로 출발해 478.82p(5.54%) 내린 8160.59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장 개장과 동시에 급격히 하락을 확대해 이날 오전 9시 8분 유가증권시장에 선 개장 직후 사이드카가 발생되며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기의 효력이 정지됐다. 장 중 한때 8038.10까지 지수가 밀렸으나 급락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과 나스닥 선물 변동 등에 힘입어 이후 투매가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3조5391억원과 939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는 993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며 현·선물 동반 순매도를 나타냈다. 주된 배경으로는 미국 브로크링의 최근 실적발표를 계기로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대한 구구성이 고개를 든 상황이 꼽힌다. 브로크링은 전날 컨퍼런스콜에서 3분기 인공지능(AI) 칩 매출이 시장 전망치를 소폭 밑도는 16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수요보다는 AI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전력 인프라 및 부대시설 구축이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매출 증가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이 반도체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평가된다. 나머지 보유주 주가가 더 빠르게 오른

영 우려가 제기되는 반도체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래셋증권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개시했다. 총 모집 예정 금액은 5억달러이고, 이날 1차로 판매할 물량은 3억달러였는데 판매 시작으로부터 채 1분을 넘기지 않고 전량 이 소진됐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내 증권시장에서도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각각 6.40%와 9.92%씩 급락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한국형 공모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70p대에서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10년 이후 평균치는 20 전후다. 여기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9.4원 오른 1539.1원을 나타낸 것도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편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47.29p(4.50%) 내린 1002.44에 거래를 마쳤다. 한때 992.80까지 내려 3개월 만에 1000선을 내주기도 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

코스피가 지난 5일 외국인 투자자의 20일 연속 순매도와 환율 상승 등에 밀리며 장중 8000선까지 위협 받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16.21p(3.66%) 내린 8323.20으로 출발해 478.82p(5.54%) 내린 8160.59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장 개장과 동시에 급격히 하락을 확대해 이날 오전 9시 8분 유가증권시장에 선 개장 직후 사이드카가 발생되며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기의 효력이 정지됐다. 장 중 한때 8038.10까지 지수가 밀렸으나 급락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과 나스닥 선물 변동 등에 힘입어 이후 투매가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3조5391억원과 939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는 993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며 현·선물 동반 순매도를 나타냈다. 주된 배경으로는 미국 브로크링의 최근 실적발표를 계기로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대한 구구성이 고개를 든 상황이 꼽힌다. 브로크링은 전날 컨퍼런스콜에서 3분기 인공지능(AI) 칩 매출이 시장 전망치를 소폭 밑도는 16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수요보다는 AI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전력 인프라 및 부대시설 구축이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매출 증가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이 반도체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평가된다. 나머지 보유주 주가가 더 빠르게 오른

과기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동 농산물 알뜰 소비·AI 국가유산 해설 등 서비스 개시

정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업 부처 및 사업수행기업과 함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합동보고회'를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AI 혁신의 혜택을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후 공모를 통해 국내 우수 AI 기업을 사업수행기

관으로 뽑았다. 과기정통부는 연내에 농축산물 알뜰소 비정보 플랫폼, AI 국제상담 시스템, 아동·청소년 위기대응, AI 기반 국가유산 해설 솔루션 등 4개 프로젝트의 대국민 서비스 순차 개시하고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모두의 경찰관, 소상공인 AI 상담·경영 컨설팅 솔루션 등 나머지 6개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 내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각 부처와 수행기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AI 서비스를 차질 없이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